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역발전 견인

전북자치도교육청, 전북자치도·전북하이텍고-완주군·한국치즈과학고-임실군 등과 컨소시엄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협약형 특성화고'를 통한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2층 강당에서 협약형 특성화고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연계 특성화고 추진 대상으로는 전북하이텍고-완주군과, 한국치즈과학고-임실군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김관영 도지사, 심민 임실군수, 유희태 완주군수, 한천수 전북하이텍고 교장, 김운하 한국치즈과학고

교장, 컨소시엄 참여 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분야, 지역 기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청-지자체-특성화고-기업-대학-유관기관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고등학교다.

이에 지능형공장자동화(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전북글로벌특성화고로 선정된 전북하이텍고는 이번 컨소시엄을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한국치즈과학고는 협약을 맺은

25개 기관과 취업과 후학습,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앞으로 3년 동안 35개의 협약형 특성화고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올해 10개 이내로 선정한다.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거쳐 5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되면 2024년 20억원, 2025~2029년까지 5년에 걸쳐 연간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김관영 도사는 "지역 전통산업과 지역 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에 더 두

차하고, 더불어 각 컨소시엄 구축과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의 학생들을 지방이 책임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고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청-지자체-특성화고-기업-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고등학교"라면서 "이를 통해 지역에서 자란 학생이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일하는 전북의 직업교육 모델을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이흥기 우석대학교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RIC) 소장 일행은 지난 22일(현지시각) 체코 산업통상부에서 'SZU·체코수소협회(HYTEP)'와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럽 수소 네트워크 구축한다

우석대, SZU·체코수소협회와 3자 간 업무협약 체결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국내 수소 관련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물꼬를 텄다.

이에 따르면 이흥기 우석대학교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RIC) 소장 일행은 지난 22일(현지시각) 체코 산업통상부에서 'SZU·체코수소협회(HYTEP)'와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흥기 소장장 홍영기 주체코 대사, 김태훈 주체코 1등서기관, 토마스 후투스카 SZU 원장, 미갈 드보라체크 SZU 해외담당관, 오재영 SZU Korea 대표, 알레스두체크 체코수소협회 이사장 외에도 체코 산업통상부에서 페트르 도스카르 국장, 데이비드 블러 국장, 피터 머바트 수소정책총괄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의 우수한 수소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우석대학교가 꾸준

하게 축적한 수소 분야의 역량을 유럽 전체에 수출하는 첫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와 가스용품 및 수소순환 등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인증제도 협력과 국제 공동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이 소장 일행은 체코 남모라바주 브르노시에 위치한 유럽인증기관인 SZU 본원을 방문, 향후 수소 산업 인증 교육프로그램과 국제 공동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이흥기 소장은 "무엇보다 수소 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대학 진입의 당위성을 축적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국내 수소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협약형 특성화고 컨소시엄 업무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 김관영 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심민 임실군수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지역연계 특성화고 추진 대상으로는 전북하이텍고-완주군과, 한국치즈과학고-임실군이다.



전주기전대, 재활의료보건의료인플루언서 피티인포와 협약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25일 재활의료보건의료인플루언서 피티인포(P.T-INFORM)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소현 작업치료과 교수(JK힐빌센터장)와 이재호 이사, 박근형 대표가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P.T-INFORM은 재활의료보건의료인플루언서로서 10만 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서울·경기권 3곳의 재활센터를 운영하며 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선수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SNS에 공유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실무 기반 교육, 연구 및 지식 교류를 통해 학술적 협력과 상호 관심 분야에 상호 협업해 유튜브, SNS를 활용한 전문적인 재활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과학기술 미래 동량들 '힘찬 날갯짓'

전북대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2024학년도 입학식

전북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손훈찬)은 지난 23일 전대학술문화관에서 2024학년도 입학식을 갖고 1년간의 심화 및 사사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학식에는 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내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1·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초등심화과정 52명을 비롯해 중등심화과정 73명, 중등사사과정 33명 등 총 158명이 입학했다. 심화과정 학생들은 STEAM교육, SW융합교육, 프로젝트 탐구활동 등 1년간 100시수 이상의 다양한 영재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심화과정 중 영재성이 뛰어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사과정에서는 연구 프로젝트 형태로 80시수 이상의 교육이 진행된다.

손훈찬 원장은 "우리 영재교육원에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수



전북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지난 23일 전대학술문화관에서 2024학년도 입학식을 갖고 1년간의 심화 및 사사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학·과학·공학·인문학 분야 등 매우 다양한 주제로 한 단계 더 높은 배움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과학영재들이 교육을 통해 지역과 국가를 이끌어 갈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영재교육원은 1998년 전북대 사범대 과학교육연구소 내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센터'로 설립됐다. 2002년 전북대 부설기관인 '과학영재교육원'으로 승격돼 올해로 27년째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5,392명의 학생이 수료하는 등 도내 과학영재 교육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육청-자치도·시군 머리 맞대다

협의회서 학교부지 활용 교외보차로 통학로 개선 등 다뤄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5일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협력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주요 협의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계획 협의 △학교부지 활용한 교외보차로 통학로 개선 △통학로 개선 대상 공동 발굴 △교육부 특별교부금(교통안전시설)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투자 방안 등이 다뤄졌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교외보차로, 방오홀타리, 단속카메라, 횡단



보도, 무단횡단 금지시설, 과속방지턱 등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을 전수 조사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도내 학생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학교부지 활용이 가능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외 보차로가 미설치된 곳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나의 미래 직업 만들기 챌린지'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도내 청년 대상 교육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3일 스타센터 204호에서 도내 청년 68명을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새로운 취업경로를 설계하는 '나의 미래 직업 만들기 챌린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청년미래직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고용정보원 발굴 신직업을 활용해 참여자들의 신직업 탐색 기회와 미래 직업 세계 변화 인식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미래 직업 카드로 알아보는 나의 직업, △미래 사회문제와 나의 전공·희망 분야별 직업 연결, △미래 직업 현실과 액션 러닝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미래 직업을 브랜딩화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는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쉽고

빠르게 신직업 정보를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이번 교육으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신숙경 교수는 "급속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청년들의 신직업 탐색과 미래 직업 세계 변화 인식을 확장하는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 선정,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조기 지원해 원활한 학교-노동시장 이행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유아교육진흥원, 사립유치원 신규교사 100명 대상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원장 강해정)은 지난 23일 사립유치원 신규교사 100명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민주적인 학급운영 능력이 사례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놀이 사례 △생태전환교육 놀이 사례 △생각이 자라는 그림책 속 인성교육 △학부모 소통 및 유아 문제해결 지도 등으로 진행됐다.

참여 교사들은 "학부모 상담 및 유아 문제 행동 지도 연수는 신규교사로서 학급 운영에 꼭 필요한 내용이어서 더욱 의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문화회관, 4월 12~18일 '도서관 주간 행사' 운영

'실력과 바른 인성 키우는 전북교육'에 중점

전주교육문화회관은 오는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2024년 도서관 주간 행사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올해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비전인 '실력과 바른 인성 키우는 전북교육'에 중점을 둔 책과 인성 8대 덕목을 융합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마련됐다.

먼저 4월 12일 오후 7시에는 도서관에 찾은 미술사와 새로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된 책과 연계한 체험형 미술 공연 '책 읽는 마법사'를, 13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는 가족 간의 무한한 사랑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가족 뮤지컬 공연 '내가 아빠고 아빠가 나라면'이 준비돼 있다.

강연으로는 4월 13일 오후 3시30분 정학경 강사(진로진학 컨설턴트, 작가)가 '내 아이를 위한 인성 코칭'을 주제로 학부모교육을 진행한다.

체험행사는 대상에 따라 가족, 초등학생, 성인 총 3가지로 행사로 운영된다. 4월 15에는 가족의 협동심을 다지기 위한 플라워 무드등 만들기, 4월 17일에는 초등학생 대상의 격정인형 키팅과 책갈피 만들기가 각각 진행된다. 이어 4월 18일에는 소중한 사람에게 행복한 꿈을 선물할 '우드링 드림 캐처 만들기'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미래출도서 대출 및 독서 이벤트인 '숨겨진 보물 책, 세상 구경 프로젝트'와, 폐기도서 나눔행사인 '내 서가에 초창하는 도서관 책'을 운

영할 예정이다.

전시행사로 '생애단계별 인성 북큐레이션'을 마련, 대상별 인성을 주제로 한 맞춤형 도서를 전시한다. 특히 인성 관련 추천도서 목록을 제공해 회관을 방문하는 도민들이 인성 도서를 1권 이상 읽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주교육문화회관 누리집(https://lib.jbe.go.kr/jec)을 통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문화과(063-270-1694)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규 관장은 "도서관 주간을 맞아 책과 인성 8대 덕목을 융합한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준비했다"면서 "바른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학생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